

네덜란드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모듈 공급

한화큐셀, 300W급 단결정 모듈 큐피크 6100장 공급

한화큐셀(대표이사 남성우)이 네덜란드 최대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에 고품질·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공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달간 네덜란드 동부 린지워드 인근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한화큐셀은 300W급 단결정 태양광 모듈 큐피크(Q.PEAK)를 약 6100장 공급한다. 이 모듈은 1만5800㎡의 수면 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건설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4인 가구 기준 약 400가구 전력수요에 해당하는 1800MWh의 전기를 매년 생산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최초의 대규모 상업용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향후 진행될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토지가 좁고 땅값이 비싸 지상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반면, 저수지나 호수 등 넓은 수면이 분포해 있어 수상태양광 발전에 유리하다. 또 수상태양광은 햇빛을 잘 반사하고 온도 상승이 억제돼 기존 대비 10% 이상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 반 허위넨(Frans van Herwijnen) 린지워드 수상태양광원 책임은 “이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수상태양광의 성공을 위한 시작”이



한화큐셀코리아가 2016년 12월 완공한 경북 문경 평지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0.7MW 규모).

라며 “네덜란드는 내륙수로가 약 7650km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상태양광이 네덜란드의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운 한화큐셀 유럽영업총괄 상무는 “베네룩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의 머리글자를 따서 붙인 총칭)는 2018년 한화큐셀이 새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올해 네덜란

드와 벨기에 시장을 선도하는 모듈 공급업체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화그룹은 올해 1월 농어촌공사와 한화·중부발전 컨소시엄과 함께 총남 당진 석문호에 조성하는 100MW급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수상태양광발전소는 2019년에 착공해 2020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김예지 기자 kimyj@

스타트업 60곳 ‘특허바우처 사업’ 1차 대상 선정

특허청, 총 10억 예산 투입...1차 모집 경쟁률 10:1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IP 기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60곳을 ‘특허바우처 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허바우처는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IP 조사·분석 및 컨설팅,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IP 서비스 이용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이번 사업은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번 1차 모집에는 총 706개 기업이 신청해 10: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허·기술, 투자·시장 전문가들의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중·소형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각각 20개사, 40개사가 선정됐다.

기업은 바우처 금액의 30%를 자기부담금으로 선납한 후 바우처를 포인트로 발급받아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AI·머신러닝,

로봇, VR·AR, IoT, 블록체인, 바이오센서, 신약 등 IT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곳이 절반 이상이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스타트업의 높은 수요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효과를 분석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교 기자 kimsk@

KTR, 中 진출 中企 인증 집중 지원 나선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KTR은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인증과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상표등록 등 수출 준비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국인증 집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35억 원을 투입해 약 18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화장품, 의료기기, 가공식품, 화

학물질, 공산품 총 5개 제품분야이며 이중 한개 분야에 한해 기업 지원 한도 내에서 품목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의 중국인증집중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김승교 기자



반극동
코레일테크 사장



코레일테크가 시설물 관리·청소 전문회사로 거듭났다. 철도 시설·차량의 유지·보수를 맡는 기존 업무에서 철도 시설물 관리 전역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코레일이 시설물 관리·청소 비정규직 용역근로자를 코레일테크의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됐다. 전환 대상자를 포함해 코레일테크에서 새로이 고용할 인원만 3500여명에 이른다.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코레일테크의 미래상입니다.”

경영방침으로는 업무 투명성과 성과 공유를 꼽았다.

회사는 개인이 아닌 직원 모두가 만 들어나가는 것인 만큼 구성원 모두가

“조직 미래, 근무 환경·구성원 역량에 달려”

업무 투명성·성과 공유·구성원 모두 운영에 참여해야

“규모가 커지고 종사 분야가 확장되면서 코레일테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현장,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시선으로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반극동 코레일테크 대표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으로 ‘더 나은 일터’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철도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 만큼 무엇보다도 근로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 미다.

이 같은 판단에는 반대표가 그간 걸 어온 행보가 영향을 끼쳤다. 198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한 이래 줄곧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켜봐 온 그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일터 문화’라고 강조했다.

“시설물 관리·청소 업무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단순히 규정과 체계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조직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것.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반대표의 지론이다.

“항상 대표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누가 오든 간에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직원들이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또 SNS를 통해서도 회사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열린 조직’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반대표는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말에 근로환경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코레일테크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직원들의 ‘내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으로 직원들을 위한 외부 강사 초빙, 자재 세미나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깨어있는 직원’들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코레일테크의 미래는 직원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거센 변화의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코레일테크를 만들겠습니다.”

김광국 기자 kimgg@

계기용 변성기 제조 전문기업 “시티이텍”
전기산업 발전에 다짐들이 되겠습니다.

지난 20년동안 변성기 개발에 힘써 기술에 귀중한 전기산업 발전에 다짐을 다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 선제적으로 더욱 신의를 부탁드립니다.

As a global instrument transformer manufacturer, CTE TECH wish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world electricity industry!

주요 생산품목 (0.72kV~36kV)

계기용 변성기 Meter Transformer, 계기용 변압기 Voltage Transformer, 변압기 계류소 Isolation Reactor, 계류용 MOI Combined Transformer, 계류용 변성기 Current Transformer, 계류용 변압기 Voltage Transformer, 계류용 변성기 Current Transformer, 계류용 변압기 Voltage Transformer

CTe (주) 시티이텍 CTE TECH CO., LTD. 경기도 고양시 오묘동 문현로 32-28 / TEL: 031-767-0632 / FAX: 031-767-0042 / E-mail: cte@ctetech.co.kr 31-28, Maunhyeongdong-gil 32, Goyang-si, Gyeonggi-do, 12774 Korea / www.ctetech.co.kr

◆ 공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 빠르고 안전하게 회사를 인수받고 싶으십니까
◆ 면허 양도 후 공법인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 회사를 제대로 평가받고 매도하고 싶으십니까

공사업 양도양수 전문!

양도양수 전기공사업 분할합병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신규등록

“1:1 맞춤 출장 상담 가능 ☎ 010-5268-4436”

(주)건설뱅크 http://www.clbank.co.kr

서울본사 TEL 02-567-8986 FAX 02-567-3453
경남지사 TEL 055-763-6677 FAX 055-763-6678

인터넷 전기신문 일렉타임즈 www.electimes.com

1. 빠릅니다! 전기와 관련된 뉴스의 실시간 전달!
2. 쉽습니다! 신문 지면을 보는 것 같은 편안한 구성!
3. 다양합니다! 폭넓은 기사와 불거리, 읽을거리 제공!

전기신문 매너광고 ☎ 02)2168-1300

검색엔진 전기신문